



“행복선언5 : 공홀히 여기는 자” (마태복음 5:7)

■ 들어가는 말

최근에 누군가와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까? 그 이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?

■ 말씀 속으로 - 들어가 봅시다. (마 5:7)

7.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.

1.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?

=> 공홀히 여기는 자입니다.

2. 공홀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?

=> “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.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.”

(새번역)

3. 공홀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?

=> ‘공홀히 여긴다’는 말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형용사입니다. ‘공홀’은 불쌍한 생각과 고통을 제거하려는 의욕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. 측은함과 행동이 함께 있는 것을 공홀이라고 합니다.

4. 왜 예수님은 성공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남을 공홀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?

=> 인간에게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.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심입니다.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 본질을 꿰뚫을 때 진정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이를 두고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.

5.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죄에 빠져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구역 안에서 나누어 봅시다.

=>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.

■ 기 도

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의 크신 공홀을 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내가,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홀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. 단지 어렵고 힘든 이들을 공홀히 여기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초 청 합 니 다

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.

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,

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,

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,

필요한 때입니다. 이 모든 것을

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.

예수 그리스도!

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

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.

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.

“온양삼일교회”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(신앙)의 이야기가 있나요?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.

